

축구

8

2020년 2월 17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마네 100호골…리버풀 17연승 행진

리버풀이 16일(한국시간) 영국 노리치에서 열린 노리치 시티와의 2019~20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2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후반 33분 마네의 결승골로 1-0으로 승리, 최근 17연승과 함께 올 시즌 26경기 무패 행진(25승1무)을 이어갔다. 마네의 개인통산 100호 골과 함께 승점 76을 쌓은 리버풀은 남은 12경기 중 5승만 더 챙기면 자력 우승을 확정한다. 리버풀의 마지막 리그 정상은 1989~1990시즌이 마지막으로 1992년 EPL이 공식 출범한 이후에는 한 번도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지 못했다.

권창훈 후반 42분 투입…공격P 실패

권창훈(프라이부르크)이 16일(한국시간) 열린 아우크스부르크와의 2019~2020 독일 분데스리가 22라운드 원정경기에 후반 42분 교체 투입,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약 5분여 간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공격 포인트 생산에 실패했다. 1-1로 비기며 최근 4경기 무승(2무2패)을 이어간 프라이부르크는 승점 33에 그쳐 상위권 도약에 실패했다. 이승우(신트트라위던)는 세르클레 브뤼헤와의 벨기에 주필러리그 홈경기 교체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출전하지 못했다. 최근 5경기 연속 결장.

여자축구대표팀 22일 NFC 소집 훈련

폴린 벨 감독(잉글랜드)이 이끄는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이 22일부터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강화훈련에 나선다. 여민지(수원FC공사), 정설빈(인천현대제철) 등 주력들이 모두 참여할 이번 훈련은 다음달 6일(중국)과 11일(제3국·원정) 열릴 중국과의 2020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예선 플레이오프(P.O)에 대비해 진행된다. 지소연(철수 위민)과 조소현(웨스트햄) 등 해외파는 3월 초 합류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황의조 프랑스 리그앙 5호골…전반기보다 나은 후반기 예약

두 경기만에 다시 터진 축포 “감 잡았어”

디종전 전반 35분 동점 헤더골
최근 3경기 2골…골 감각 회복
남은 13경기 추가골 여부 관심

황의조(28·지롱댕 보르도)가 최근 3경기에서 2골을 넣으며 전반기보다 나은 후반기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황의조는 16일(한국시간) 프랑스 보르도 마트뤼 아틀란티크에서 벌어진 2019~2020 프랑스 리그앙(1부 리그) 디종과의 홈경기에서 0-1로 뒤진 전반 35분 동점골을 터트렸다. 6일 브레스트와의 원정경기에서 후반기 첫 골을 신고한 그는 2경기 만에 다시 득점포를 가동하는데 성공했다. 황의조는 이번 시즌 23경기(컵대회 2경기 포함)를 뛰며 5골(2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한 그는 코너킥 상황에서 공격에 가담해 골을 만들어냈다. 수비수에 시야가 가린 상황에서도 정확한 헤딩슛으로 상대 골문을 열었다. 황의조는 후반 39분 교체돼 벤치로 물러나기 이전까지 활발한 몸놀림으로 팀 공격에 기여했다. 그는 이번 시즌 디종을 상대로만 2골을 기록 중이다. 황의조는 지난해 8월 디종과의 원정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프랑스리그 데뷔골을 넣은 바 있다. 보르도는 2-2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고, 9승8무8패(승점35)로 9위를 마크하고 있다.



보르도 골잡이 황의조(오른쪽)가 16일(한국시간) 홈에서 열린 디종과의 2019~2020 프랑스 리그앙 경기에서 전반 35분 헤딩골을 터트린 뒤 동료의 축하를 받고 있다. 최근 3경기에서 두 골을 뽑은 그는 빠르게 페이스를 올리며 후반기 맹활약을 예고했다. 사진출처 | 지롱댕 보르도 트위터

전반기에 15경기에 나서 3골을 넣었던 황의조는 후반기 들어 컵 대회 한 경기 포함 7경기를 소화하며 2골을 기록, 좀 더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를 받은 그는 지난해 12월 군사훈련을 위해 전반기를 조기

에 마쳤다. 군사훈련을 마치고 팀에 복귀해 후반기를 소화하면서 꾸준하게 출전 기회를 가져가며 2골을 기록하는 등 팀에 확실한 보탬이 되고 있다. 주 포지션인 최전방 공격수로 뛰는 경기는 적지만 측면 윙어 자리에서도 어느 정도 몫을 해내고 있다.

보르도는 컵 대회에서 모두 조기 탈락해 리그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리그 잔여 13경기에서 황의조가 얼마나 많은 공격 포인트를 추가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르도는 24일 리그 최강자 파리 생제르맹과 원정경기를 앞두고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코로나19에 뒤송송한 K리그 “개막 연기 없다”

손 소독제·열 감지 카메라 등 배치
각종 유형별 대처 매뉴얼 마련 방침

중국 우한에서 발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 중인 가운데 잠시 소강국면을 보였던 국내 확진자가 16일 현재, 29명까지 늘었다. 스포츠계도 뒤송송하다. 대표적인 겨울 종목인 배구·농구는 관중이 크게 줄어들어 우울하다.

개막이 임박한 K리그도 걱정이 태산이다. 29일 정규리그 돌입을 앞둔 한국프로

축구연맹은 21일 K리그 각 구단 사장·단장들이 참석할 대표자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논의를 갖기로 했다. 매달 한 차례, 정기적으로 열리는 대표자 회의는 친목 도모의 성향이 짙지만 올해는 많이 다르다. 코로나19가 추이를 예측할 수 없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탓이다.

다만 슈퍼리그 개막을 무기한 연기한 중국과는 달리, 선수·팬의 건강문제와 흥행 우려로 축구계 일각에서 제안하고 있는 ▲개막 연기 ▲스케줄 축소 등은 없을 것으

로 보인다. 대표자 회의 의제에 코로나19 안전이 포함될 건 맞지만 지금으로선 정상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연맹 관계자는 16일 “아직 개막 연기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정규리그 이후 상·하위 그룹으로 구분해 5경기를 더 치르는 파이널 라운드를 제시시켜 일정을 줄이는 경우도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에 연계된 가장 최근 상황을 각 구단들이 공유하고 연맹과 프로스포츠협회의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강조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연맹 의무위원회가 전달한 경기장 안팎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비치, 체

온계 및 열 감지 카메라, 건강 문진표 작성 등은 기본이고 현장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감염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대처 매뉴얼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울산 현대와 FC도쿄(일본)의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조별리그 1차전이 열린 11일 울산문수경기장에도 한 일본 팬이 고온 증세를 보였는데, 지정병원 후송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 잠시 혼란을 빚기도 했다.

한 구단 관계자는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구상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당장 흥행보다는 긴 안목의 대처가 중요하다. 철저한 유형별 시나리오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RIVADI 리바디 COMFORT SHOES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

천연소가죽 시험성적서

KATRI NO : STHE19-00000272

65%
OFF

모델명

리바디-B (다크브라운)
재질:천연소가죽

NAVER **7일착함** 진수테크쇼핑 **을 추천해요**

2020년 정통 유럽브랜드 "통가족 리바디" 파격할인!!

소프트한 천연소가죽 외피, 완벽한 통풍, 강력한 미끄럼방지,유럽풍 디자인

불편한 신발 때문에 고민이라면 발이 편한 리바디가 최선입니다!

정통 유럽 브랜드 리바디가 새로운 감각의 컴퍼트화를 출시하였다. 부드러운 외피와 완벽한 통풍성에 강력한 미끄럼방지 기능을 탑재한 컴퍼트화다. 기존의 신사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한 내구성을 겸비하였고 디자인 또한 유럽풍으로 세련되고 수려하다. 극단적으로 부드러운 외피는 발을 부드럽게 감싸주어 신은 듯 안 신은 듯 발에 감기는 착화감이 압권이다. 새로운 신발은 발에 잘 맞질 않아 열마진 신어야 비로소 발에 맞춰지지만 리바디 컴퍼트화는 처음 신는 사람도 오랜 시간 신는 신발처럼 발에 잘 맞는다. 유럽풍 디자인은 어떤 복장에도 잘 어울리며 다크브라운의 외피 색상은 중후하고 우아한 패션을 만들어 준다.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것이 리바디의 장점이다. 리바디 컴퍼트화는 내구성이 뛰어나서 기존의 제품들과는 완벽하게 차별된다. 밑창과 외피로 이어지는 부분은 꼼꼼한 손

바느질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파손이나 훼손의 염려가 없어 장기간 신을 수 있다. 또한 밑창은 잘 닳아지지 않는 특수 러버창을 채택하여 빗길이나 눈길에서도 미끄럼없는 안전한 보행을 만들어 준다. 강력한 밑창은 과격한 움직임이나 거친 장소에서 보행을 할 경우에도 발을 보호해 주고 충격을 완화시켜준다. 리바디 컴퍼트화는 발의 모양이 좋지 않아 기성화를 신기 힘든 분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부드러운 외피는 발의 모양대로 감싸주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족형에도 마치 맞춤화처럼 잘 맞아 발이 불편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발이 편한 리바디 컴퍼트화는 장시간 보행을 하여도 발이 피곤하지 않고 발이 편해 일상화에서 작업화 및 여행, 야외활동 시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 2020 런칭기념으로 파격할인 이벤트가 진행중으로 놀라운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발관리가 중요한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도 2020 리바디 컴퍼트화를 강력 추천드린다. 색상은 블랙, 다크브라운 2가지 색상이 있으며, 파격 할인 이벤트 기념으로 선착순 100분에게 무료배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 특가 행사 제품으로 주문량이 폭주하여 배송이 지연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주문 : www.j1234.co.kr



모델명
리바디-A (블랙)

기존가: 138,000원
파격가: **49,800원** (택배비 무료배송)
사이즈 245 / 250 / 255 / 260 / 265 / 270 / 275 mm

제품구입문의 : 1566-1788 (주말, 공휴일 주문가능)
입금계좌 : 우리은행 / 1005-301-396749 (주)진수테크